

광주 교보생명 사거리·순천 풍전주유소 앞 '우회전 주의'

광주·전남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어디

행안부·경찰청, 사고 잦은 전국 60곳 점검...광주·전남 5곳 포함 횡단보도 위치·신호 조정, 시선 유도봉·과속방지턱 등 설치 제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은 어디일까? 최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우회전 보행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주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 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넘게 발생한 지역 60곳을 점검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교보생명 앞 사거리', 서구 농성동 '교직원공제회 앞 교차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사거리' 등 3곳이 우회전 보행사고 다발 지역으로 꼽혔다.

교보생명 앞 사거리는 12개 문제점을 지적받아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쉽게 과속할 우려가 있고 도로에 장애물이 많아 시야가 막혀 있으며, 보행 동선이 단절돼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또한 우회전 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게 돼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 등은 이곳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정지선을 이설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는 주변보다 높이를 높여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장물 제거,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하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교직원공제회 앞 교차로에서도 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과속 차량이 많은데다 불법 주정차도 발생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북구청 사거리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에 암적색 도색을 다시 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시 풍전주유소 삼거리, 영광군 터미널 사거리 등 2곳을 우회전 보행사고 다발 지역으로 꼽고 시선 유도봉·과속 방지턱·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행안부 등은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곳에서 총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시설이 잘 식별되지 않는 문제가 개선돼야 하는 경우가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러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요인이 13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가장 많은 개선 사항을 지적받은 광주시 동구의 교보생명사거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행안부는 총 350건을 단기 240건과 중장기 110건으로 조치 기한을 구분해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고, 단기 건은 올 연말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 건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방법으로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바뀐다

전남경찰, 목포 옥암동 부주초교 앞 3개월 시범 운영

전남경찰은 목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남을 비롯해 대구·인천·경기 북부·강원·충북·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3개월간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옥암동 부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적용됐으며, 이번 주 중

도색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횡단보도 색을 바꾸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 위협

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정차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 시범운영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는 서울과 충북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월급제 전면실시"

민노총 광주지부 촉구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이 급여를 현행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바꿔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제도를 월급제로 전면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긴급돌봄, 틈새돌봄, 맞춤형 돌봄 등 민간 센터가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대상자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중

합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정규직인데도 광주사회서비스원 16개 소속 기관 중에 유일하게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가서비스의 특성상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이 있음에도 이를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는데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조차 힘들고, 광산구 재가 돌봄 요양보호사들은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교조 광주지부, 만5세 취학 정책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논의중인 교육부에 대해 조기 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아동의 능동적으로 관찰하며 아동 스스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충족하고 학습의지를 키워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9 누리과정'을 자신들이 발표 했음에도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아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져야 할 고귀한 주권자, 그 권리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정책은 앞으로 만 5세 학생들을 지금의 만 5세 학생들보다 1년 이상 빠르게 강도 높은 학습과 교육에 노출하는 정책"이라며 "지나친 입시경쟁과 선행학습으로 아동 학습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개 태풍 소멸...광주·전남 다시 무더위

두 차례 태풍이 지나간 뒤 광주·전남 지역에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송다',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모두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으나,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넣으면서 광주·전남 전역에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열대저압부 영향은 오는 3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2일까지 광주·전남에 5~40mm 비가 내리고, 지리산 인근에는 20~6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어 비가 그치는 지역부터 기온이 올라 최고 체감온도가 31~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와 진도·신안·목포·영광·함평·무안·영암·완도·해남·강진·장성·담양·나주 등 전남 13개 시군에는 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또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열대야도 곳곳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